

# 용인시, GTX-A 구성역 '6월 개통'... 연계 교통망 확충

굴착 중 암반 발견... 공사 지연  
버스노선 경로 조정·운영 확대  
복합환승시설 갖춘 교통허브 계획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노선이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는 구성역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챙기는 한편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



GTX 구성역 종평면도

/용인시

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정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

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북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이 반영되어 건설되면 성남·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선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시장은 현재 복선인 SRT 노선이 평택 지제~오성 구간에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SRT 수서~지제 구간도 복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 계획이 검토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를 종합적인 복합환승 시스템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기도

####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활동 시작

경기도는 '2024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한 회계·사무 분야 경력보유여성 등 60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여성 등을 공공사무원으로 양성해 소상공인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 경북도

#### '경북기능경기대회' 막 올라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구미 금오공고, 경주 신라공고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36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 제어, 모바일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포함해 49개 직종의 경기가 치러진다.

도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올해는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경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5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 전주시

####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제공

전북 전주시가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제공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덕진구 도도동 내 시유지(7000㎡)를 활용해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을 조성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도시농부 교육 텃밭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경우에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3일 개장 이후부터 11월까지 도시농부 텃밭 교육(10회)과 1평짜리 텃밭 2개가 제공된다.

또 체험 텃밭의 경우 전주시민 중 비농업인 세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텃밭 관련 교육을 제공되지 않지만 자유롭게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전주(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 합천군

####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식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황매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을 가졌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개장한 합천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2022년 착공해 2023년에 완공했으며,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29,611㎡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했다.

구조는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휴양·여가 공간을 구축했다.

예약방법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매월초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예약자가 선정된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1358교 불법촬영 기기 불시점검 실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점검  
올해 학교당 1회 점검 기본 진행  
불법촬영 인식 캠페인 등 예방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1358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 이뤄진다.

올해는 학교당 1회 점검 기본으로 진행된다.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

는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뒤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도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 "마음 힘들 때 동네의원으로 오세요"

부산시, 마음건강돌봄 사업 2년 연장

부산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한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시 의사 상담 또는 선별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19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사업기간 내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 추진을 통해 진료 전 대기실에서 사업 안내, 참여 의향확인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과정이 추가됐다.

또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우선 권고하던 방식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선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대구·전남·부산·경북, 기회발전특구 신청

산업부, 접수 내용 검토 절차 완료

대구가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데이터 센터, 경북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기준 대구와 전남, 부산, 경북 등의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게 추진하는 제도다.

세제와 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되는 만큼 기업의 지방투자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는 SK C&C는 물론 엘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청송군, 도시환경 조성에 414억 투입

건설·새마을 분야에 투자

경북 청송군은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예산 414억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7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3억 1000만원을 들여 광덕교(진보면), 마평교(주왕산면), 어천교(파천면) 등 2중 시설물(연장 100m 이상 교량)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청송교(청송읍, 추강교(현동면), 송강2교(파천면), 덕천교(파천면)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해 교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상습가뭄지역인 안덕면 지소리, 현서면 모계리 지내 만안·두루골지구 발기반 정비사업에 22억 5200만원을 투입한다.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74억원), 안덕면 지소리 구덕지구 발기반정비사업(18ha), 개일리고목곡지개보수공사 등은 올해 마무리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저수지와 농업기반시설물 64지구(사업비 76억원)도 개·보수한다. /청송(경북)=장영우 기자